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NEWSLETTER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연구소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Homepage: <http://tongil.snu.ac.kr> E-mail: tongil@snu.ac.kr

한국민주주의와 남북관계 : 특별심포지움 개최



통일연구소는 한국의 민주화 20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화두로 지난 10월 10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라는 주제로 특별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5월~9월(4개월) 동안 통일연구소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자체 실시한 통일외식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장이기도 하였다.

박명규 소장은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진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발전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심포지움이 그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학술회의 제1부에서는 통일외식조사에 참여했던 통일연구소의 김병로 전임연구교수와 국방대학교 김병조 교수가 한국사회의 변동과 국민통일외식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흥

미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통일의식이 약해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위협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를 선호하는 집단일수록 통일의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학술회의 제2부에서는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와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가 각각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와 민주주의”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화 민주주의, 시민사회 갈등의 제도정치로의 수용, 열정의 정치에서 이익의 정치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IUS**

창립 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대북정책의 모색



창립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이 2007년 6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대북정책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 평화센터소장)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프로그램

〈제1부 “현장에서 본 남북관계: 학계에의 제언”〉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종삼 (월드비전 회장)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 전 통일부장관)

〈제2부 심포지움〉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국가전략의 모색”
이근(서울대 교수)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남성욱(고려대 교수) “FTA체제하의 남북경협 미래”
서보혁(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인도주의·인권 의제와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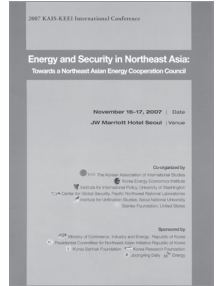
〈제3부 종합토론〉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실장)

개회사에서 박명규 소장은 평화통일을 향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역량과 정책적 예지들이 종합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면서 통일학 정립을 위한 통일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학술심포지움의 축사에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통일연구소가 지난 1년간 통일학 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발한 학술활동을 통해 우리 대학의 중심연구소로 발전하게 되었다면서 한반도 최대 과제인 통일과 평화를 위해 진지한 연구를 지속할 것과 우리 사회의 수준 높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면서 북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 문제에서의 남북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술심포지움에는 박명규 통일연구소 소장, 임현진 서울대 사회대 학장,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현희강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신용하 백범학술원 원장 등 정·학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IUS**

국제학술회의 : 동북아시아 에너지와 안보



구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내에서 새로운 분쟁과 협력의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탐색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이론적 기초로서 자유주의적 프로세스(기업역할)와 법적프로세스(정부간 협정에 기초) 및 규제중심 혼합형 프로세스 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기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 에너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정치화 과정과 역내 국가들간의 대결구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지역내의 포럼이나 싱크탱크 등의 단위를 구성하여 역내 법적 틀을 만드는 일이 현실적인 초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협력의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정책으로 연결시키려는 실천적인 차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국의 강점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에서 하용출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백종천 청와대안보실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Claude Mandil 전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Stephen W. Bosworth 전주한미국대사, Nodari Simonia 러시아 IMEMO 에너지연구센터소장, Dadi Zhou 중국 에너지연구소 소장, Tatsujiro Suzuki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Carol Kessler 미국 북서태평양위원회 지구안보센터 소장, Donald Hellmann 워싱턴대학 교수, Martha Brill Olcott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등 에너지 안보 관련 학자와 정부관리, 정책분석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IUS**

통일연구소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2007년 11월 16일 ~ 17일 (금, 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동북아시아 에너지와 안보 - 동북아 에너지협력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11월 16일

- 제1세션 : 에너지협력과 동북아 안보
- 제2세션 : 에너지협력과 안보
- 제3세션 : 동북아의 통합적 에너지협력체제의 구축을 향하여

11월 17일

- 제1세션 : 동북아에너지협력협회의 사명과 구조 그리고 운영
- 제2세션 : 에너지 지역협력을 촉진시킬 구조 - 새 세계를 위한 새 제도 틀
- 제3세션 : 동북아에너지협력협회의 발전을 위한 원탁 토론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다자적 협력 메카니즘의 창출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하였다. 각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의 방법론상의 문제에서 이견을 노출하였으나, 동북아 각국이 함께 많은 시간을 들여 연

2007년 제3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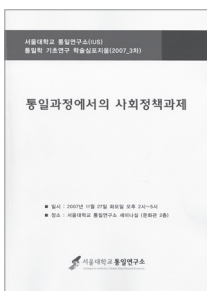
통일과정에서의 사회정책과제



- 제1발표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 비교사각
발표: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정영철 박사
토론: 통일연구원 조정아 연구위원
- 제2발표 통일 후 어린이 영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표: 식품영양학과 이연숙 교수
토론: 이화여대 장남수 교수
- 제3발표 통일 이후 노동인구 이동분석
발표: 건설환경공학과 정창무 교수
토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연구위원

노동인구 이동분석”을 주제로 건설환경공학과 정창무 교수가 각기 그 간의 연구성과를 제시하였다.

임현진 교수는 북한의 사회정책을 그 내용과 특징, 앞으로의 변화 전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회정책이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남북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연숙 교수는 발표에서 북한어린이들이 절대 빈곤과 식량부족으로 성장지연, 미량영양소 결핍에 따른 영양불량상태가 심각하다며, 남북한 어린이들의 식생활환경과 영양·건강상태의 커다란 격차가 통일 이전 반드시 좁혀져야 할 선결과제임을 역설하였다. 정창무 교수는 통일 이후 발생할 북한 이주민 수를 예측, 제시하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과 함께 제조업과 같은 저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집중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체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주민 거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향후 통일 이후 정부의 주요 정책사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2006년도 통일학 기초연구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심포지움이 2007년 11월 27일 오후 2시~5시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3개 발표로 구성된 이번 학술심포지움에서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비교사각”을 주제로 제1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제2발표는 “통일 후 어린이 영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주제로 식품영양학과 이연숙 교수가, 제3발표는 “통일 이후

이번 학술심포지움의 토론을 위해 통일연구원 조정아 연구위원, 이화여대 장남수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IUS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일본의 입장 강상중 (도쿄대학 교수)

통일연구소는 2007년 10월 1일 법과 대학 서암홀에서 일본 도쿄대학의 강상중 교수를 초청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일본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제8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강상중 교수는 독일통일의 배경과 조건이 한반도의 현실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에 기반한 인식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대립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그 관건이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상중 교수는 한편 일본내에는 아직 북일간의 국교수립을 통해 북한을 유지시키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일본인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인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연대하여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US**

평양과기대 설립 추진현황과 전망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2007년 10월 16일(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을 모시고 사회과학대학 희관기념홀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 추진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NGO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진경 총장은 중국 내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과를 인정받아 2001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평양에 과학기술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08년 4월 개교 예정인 평양과학기술대는 정보통신분야, MBA분야, 농업과 식품분야, 의료보건분야, 지식산업 복합단지 등을 운영하기로 북한 정부와 합의하였고, 이미 교사 총원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국무부에도 평양과학기술대학 안에서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임을 밝히면서 박찬모 포스텍(전 포항공대) 전 총장이 정보통신공학 학부장을 맡기로 했으며 KAIST 서남표 총장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한국의 대학, 특히 서울대학교가 앞장서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절대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US**

우리의 평화안보 전략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2007년 10월 31일 오후 3시 법대 서암홀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을 초청하여 “21세기 우리의 평화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9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백종천 실장은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참여정부의 평화안보전략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백 실장은 2000년의 정상회담에서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컸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상대적으로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모습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개성공단 이외에 해주를 중심으로 서해평화특별지대를 개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반도평화체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백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이 특정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 관련당사국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하며 그간의 논란을 불식시켰다. 이번 강연내용은 통일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US**

북한주민, 그들의 꿈과 삶 전혁 (전 북한 건설건설재공업성 자재상사 부사장)

새터민포럼이 2007년 11월 6일(화) 오후 7시에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전혁(전 건설건설재공업성 자재상사 부사장)씨가 “북한주민, 그들의 꿈과 삶”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전혁씨는 1996년-2000년까지 겪었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기를 떠올리면서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서 생계유지를 시장에서 장사로 해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사회가 돈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가 되었다고 하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 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체제적 통일에 앞서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회복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IUS**



북한의 선군정치, Sergey Kurbanov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교수)

2007년 7월 4일(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교수 겸 한국언어문화센터 소장인 세르게이 쿠르바노프(Sergey Kurbanov) 교수를 초청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라는 주제로 제9차 통일학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쿠르바노프 교수는 북한이 1998년 주석직을 폐지한 상태에서 주석직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체계를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체제로 이동시켜야 했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선군정치를 고안해 냈다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김일성이 사후 ‘영원한 주석’이 되었듯이, 김정일 역시 사후에 ‘영원한 장군’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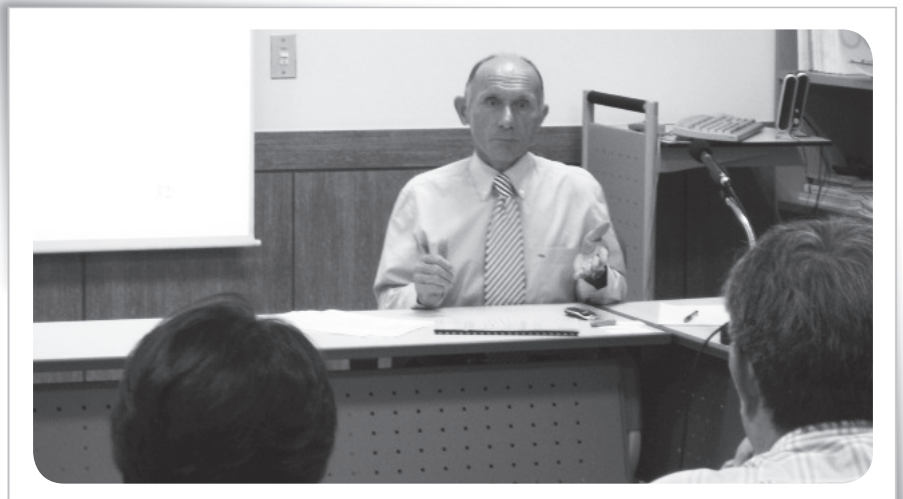


측했다. 국가박사인 쿠르바노프 교수는 1984년~1985년 6월 동안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생생활을 했으며, 역사학

전공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IUS**

동서독 통일 이후 경제번영의 꿈과 현실 Helmut Assfalg (독일 Jena 대학 경영학 교수)

2007년 8월 21일(화) 독일의 예나(Jena)대학 경영학 교수인 헬무트 아스팔그(Helmut Assfalg) 교수를 모시고 “동서독 통일 이후 경제번영의 꿈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제10차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From Flourishing Landscapes to the End of the Illusion?: Experiences in West and East Germany 1989-2007” 라는 원제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이번 세미나에서 아스팔그 교수는 독일의 통일로 독일경제가 번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잘못된 기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 그리고 불균형 발전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동독지역은 기대와는 구서독지역에 비해 상당한 소득격차와 산업발전의 차이를 보였



으며, 이는 통일이후의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독일의 심각한 실업문제와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야기하여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스팔그 교수는 통일이 전인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대학에서 근무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독일의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있는 분석을 제시해 주었다. **IUS**

북한관련 해외자료 수집현황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2007년 9월 11일,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를 초청하여 북한관련 해외자료 수집 현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한범 박사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으로 2002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3년간 해외소재 북한자료 수집사업을 주도하였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구 동독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기밀문서, 문헌자료, 구술자료 등을 수집하여 총7종의 발간물을 출판하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 등을 설명하였다. 그는 해외에 북한과 관련된 무수한 자료들이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계획, 충분한 재정 확보 없이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불가능함을 역설했다. **IUS**

북한-중국간 경제사회 연결망구조 김강일 (중국연변대 동북아연구원 원장)

10월 24일(화) 오후 4시 중국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김강일 교수를 초청하여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북한-중국간 경제사회 연결망 구조”를 주제로 제12차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김강일 교수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단계적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하였다. 김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 등소평은 김일성에게 개혁, 개방을 강하게 권유하였으나 김일성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쩌민 정권은 북한 문제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 고수하여 북중 간 무역관계가 단절되고 원조가 중단되어 북한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반면, 후진타오 정권은 동북지역 경제발전 문제가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북한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관점이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구세대 학자들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보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한 반면에, 40대 이하의 신세대는 이념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인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강일 교수는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 침투의 확대에 대

한 남한사회의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며 그 이유로 현재 중국 기업가들 사이에서는 대북투자사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북한을 상대로 하는 무역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오히려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개변시킨다면 한국의 통일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중국학자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IUS**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2월 11일(화) 오후 2시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는 통일연구원의 이석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을 주제로 제13차 통일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석 연구위원은 강연을 통해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세계가 이용가능한 북한통계의 내용과 그 출처를 소개하고, 북한통계의 특징과 신뢰성 문제를 구체적인 통계 자료들을 제시해 가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석 연구위원은 북한 통계를 1945-60년대 초반, 1960년대 초반-1995년, 1995년-현재로 시기 구분을 하여 각 시기별 통계자료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는 조선중앙연합의 통계부록과 공식적인 통계보고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식통계가 발표되었으나, 두 번째 시기는 북한통계의 암

흑기로 통계로 간주할 만한 어떤 통계데이터도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5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북한당국 스스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계자료를 외부에 공표했으며, 북한에서 활동하는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들이 직접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통계를 수집하여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북한 통계자료들이 상당수 외부에 발표되었다.

또 이석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가용할 수 있는 북한 통계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의 왜곡과 과장, 통계의 수정과 재확정, 통계의 의도적 조작 문제 등이 여전히 북한통계에 내포되어 있어 신뢰성을 검증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IUS**



연구모임 활발히 진행

“대학원생 월례연구모임”

2007년 하반기에도 대학원생들의 월례연구모임이 11차부터 16차까지 진행되었다. “2.13합의를 전후한 북한의 입장발표,” 2007년 서울대 정치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수호 박사의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이채진 교수의 저서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wo Koreas* (2006년,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Charles L. Pritchard의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2007년, Brookings Institution Press)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세미나에는 서울대 장달중 교수, 송실대 이정철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이수호 수석연구원, 그 외 서울대, 연대, 이대 대학원생 다수가 참여하였다.

“원서로 읽는 독일통일”

이 모임은 독일 통일에 관심이 있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19:00~21:00에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박성조 교수(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통일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이 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독일 통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과 동시에 독일어 강독 실력까지 배가 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통일아카데미〉 제2기 성황리에 수료



본 연구소는 2007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통일아카데미〉과정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하에 마련된 통일교육사업이다. 본교 및 타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아카데미는 10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되었으며 강의 및 토론, 영상물 시청, 현장학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8주 수업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총18명의 수강자 가운데 11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또 2008년 1월 10일(목)에 현장학습체험의 일환으로 아카데미 강사들과 수강생들 총40여명이 판문점과 도라산역 등을 답사하였다. 이는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절박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IUS**

일자	횟수	주제	강사
10월 9일	1강	(입학식) 21세기적 통일비전	김병로 (통일연구소 전임연구교수)
10월 16일	2강	국제정치이론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신육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10월 23일	3강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경험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10월 30일	4강	독일통일 18년의 교훈	김영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월 6일	5강	새터민 초청강연: 북한주민, 그들의 꿈과 삶	전 혁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자재상사 부사장 출신)
11월 13일	6강	북한의 시장확산과 남북경협	정은미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1월 20일	7강	새터민의 탈북과 남한살이	박정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1월 27일	8강	통일, 민족, 평화	박명규 (통일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대외 학술교류 / 방문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Stiftung)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2007년 9월 26일, 우리연구소의 박명규 소장 일행이 독일을 방문하여 한스자이델재단과 학생교류, 자료교환, 공동연구 등에 관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통일부와 학술교류협정체결

2007.11.1부터 2년간 우리연구소와 통일부간 학술정보상호협력(자료교환, 데이터베이스 교환, 저작권, 인적교류)에 관한 학술협정을 체결하였다.

통일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체결

2007년 12월 3일 통일연구원(이봉조 원장)을 방문하여 공동학술행사, 자료교환, 공동연구 및 협력방안에 관한 학술협정을 체결하였다.



방문자 명단

7월 4일 Sergey Kurbanov 교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부교수 겸 한국언어문화센터장)

7월 6일 Meredith Jung-En Woo 교수 (Michigan 대학교)

7월 19일 한종우 교수 (미국 Syracuse University 정치학과)

8월 1일 Carter Eckert 교수 (Harvard 대학교), Moon Yoo Mi 교수 (Stanford 대학교)



8월 21일 Helmut Assfalg 교수 (독일 Jena응용대학 경영학)

8월 21일 Dr. Werner Kampeter 대표 (Friderich Ebert Stiftung)

9월 5일 Marie-Orange 연구원 (프랑스 EHESS Center for Korean Studies)

9월 11일 Tessa Morris-Suzuki 교수 (호주국립대)

9월 12일 Kenneth Wells 교수 (호주국립대)

10월 17일 Vasily Zhukov 총장 (Russian State Social University)



11월 Jae H. Koo 소장, Yong Shik Choo 연구원 (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US-Korea Institute) Hyung-A Kim 교수 (호주국립대)

12월 18일 Rainer Dormels 교수 (오스트리아 Wieu University)

독일의 통일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의 국제협력 상황

박 명 규 소장

2007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베를린 자유대학 박성조 교수와 독일의 통일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을 만나고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는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대응은 어떠한지, 분단 시대의 기억과 경험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와의 학술교류 및 다양한 협조를 논의하고 또 자료교환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독일의 경험을 좀더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의 향후 통일연구와 의미있는 접목을 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몇 기관과 현장을 소개한다.

관련기관

Frei-Berlin University :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하고 Werner Vaeth 부총장과 면담, 통일 이후 독일의 대학체제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베를린대 통일관련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Collier 교수와도 서울대학교와의 학술 교류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 교류방식의 학술행사를 지속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Stiftung Auarbeitung : 통일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구동독에서의 국가범죄 및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총체적 자료정리와 연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이다. Appelmann 이사장은 동독 민주화를 주도한 대표적 인물이며 서울대 통일연구소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본 연구소와의 지속적 협력을 논의했으며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주요한 자료가 되는 위원회 보고서 CD로 제공받았다.



Die Bundesbeauftragte fu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Birtherl Behoerde) : 구 동독의 국가비밀경찰 관련 문서를 관리하면서 관련된 연구활동도 하고 있는 주요한 기관이다.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의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다. Hans Altendorf 소장과 Dr. Roger Engelmann에게 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자료를 기증받았다.

역사박물관 : 독일의 전 역사를 유물과 더불어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이런 종류의 역사박물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오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시하는가, 독일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주의에의 우려를 어떻게 다루는가 등은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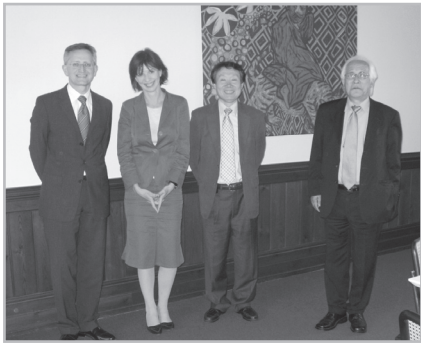
우리에게도 큰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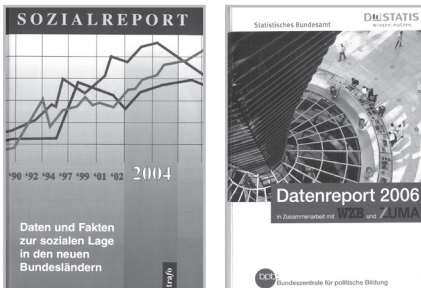
Hans Seidel Foundation : 독일 바이에른 주에 본부를 두고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으로 한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깊고 평양에서 수년간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북한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Dr. Bauhofer 씨와 면담하고 앞으로 북한 및 통일관련 연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연구소

WZB : 독일 최대의 사회과학연구소로서 통일 후 독일사회의 제반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Daten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Allmendinger 소장 만나 독일의 사회과학연구와 통일현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듣고 서울대 통일연구소와의 교류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 Dr. Ulrich Jurgens 교수와 Dr. Roland Habich로부터 독일에서의 통일문제 연구현황을 듣고 향후 협력가능성을 타진하였다.



SFZ (Sozialwissenschaftliches Forschungszentrum Berlin-Brandenburg) : 구동독 지역에서 통일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독립연구소이다. 동독 시절 사회과학연구원에 속해있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독자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Social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통일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령화와 인구변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ZZF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 포츠담에 설립되어 있는 현대사연구소. 통일이후 독일의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통일 이후 역사해석과 지적 담론의 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였다. Christoph Klessmann 전소장과 만나 독일통일의 경험과 한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가능한 학술교류 방안을 모색하였다.



Forschungsverbund SED-Staat :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통일의 경험 및 구동독의 사회정치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 최근에는 구동독에서의 문화정책, 영상 및 대중매체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Dr. Jochen Staadt와 서울대-베를린 자유대 간에 통일관련 학술심포지엄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Halle Economic Institute : Humbolt 대학의 세미나실에서 할레 대학 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 책임자인 Udo Ludwig 교수로부터 통일 이후 동독지방 경제변동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독일통일의 경제적 측면에 대하여 논의하고 앞으로 서울대학교와의 학술교류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ifo : 드레스덴에 있는 구동독 지역의 경제현황을 연구하는 연구소. Marcel Thum 교수와 동독의 경제사회 상황에 대해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기증받았다.

현장

Foundation Collegium Wartinum : 베를린대학 Hans-Joachim Mengel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구동독지역 마을단위 민주주의 공동체운동 현장을 방문하였다. Mengel 교수는 민주주의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의 삶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구동독지역 주민들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버려진 건물과 땅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관련된 문화활동을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Plauen : 동서독을 분단시켰던 군사분계선 지역을 현재 생태적인 공간으로 보존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인 Findeis 씨로부터 분단이 초래한 생태적 단절이 통일이후 어떻게 재통합되고 있는지를 설명들으면서 자연의 통일도 사람의 통일 못지 않게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남북한이 앞으로 DMZ 지역을 어떻게 다루고 통합시켜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곳이다.



Moedlareuth : Little Berlin 으로 알려진 조그만 마을로 동서독 분단이 한 평화로운 마을을 분리시키고 서로간에 불신과 대립을 조장했던 아픈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는 곳. 마을이 곳 박물관이라 할 만한데 이런 형태의 박물관을 'German-German Museum'이라 한다. 앞으로 통일 이후 한국에서의 자료전시 및 박물관과 기념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IUS**

2008년도 상반기 서울대학교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안내(예정)

1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일시: 2008년 2월 12일(화) 13:30-18:00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문화관 2층) 세미나실

제1회의 13:30-16:00

장달중 외 1명, 미북대립의 기원과 전망
윤영관,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의 정치경제
이근관 외 3명,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분석-북한
국제법사전을 중심으로

제2회의 16:10-18:10

이온죽, 북한 사회의 체제유지 기체에 관한 연구: 외곽
단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인섭 외 1명, 북한의 사형집행 및 강제수용소의 실제

2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일시: 2008년 2월 19일(화) 11:00-18:10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문화관 2층) 세미나실

제1회의 11:00-12:00

이용환 외 1명, 남한 기반 산업체 취업을 위한 북한 이
탈주민의 기초직업능력 요구분석

제2회의 14:00-16:00

황상익, 1960·70년대 체제 안정기의 북한보건의료

김금순 외 2명, 남북한의 장애정책 및 장애인에 대한 태
도 비교

제3회의 16:10-18:10

정광호,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어린이 건강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정효지 외 1명, 탈북 청소년의 건강위험 실태조사 및 건
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3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일시: 2008년 2월 26일(화) 13:30-18:00

장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문화관 2층) 세미나실

제1회의 13:30-16:00

최진용 외 2명, 북한 가뭄 특성 분석 및 가뭄 우심지도
작성

박경숙 외 1명,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

신남식 외 1명, DMZ 지역내 생태환경 보전방안 및 관
리지침서 개발

제2회의 16:10-17:10

배은경 외 1명, 남북여성교류와 남북여성의 통합화에
관한 연구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 확정된 내용은 통일연구
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통일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끄
어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일아카데미〉과정 제3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대상 :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교 대학(원)생
- 접수기간 : 2008. 3. 3(월) - 3. 31(월) 오후 5시
- 교육기간 : 2008년 4월 8일(화) - 5월 27 (화), 매주 화요일 19:00 - 21:00
(총8회, 현장학습 1일 별도 추가)
- 교육장소 : 서울대 통일연구소 내 세미나실
- 접수 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tongil.snu.ac.kr)에 공지하겠습니다.

2007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과제선정

통일연구소에서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제기될 제반 문제점을 진단 /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일학 연구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신청요강을 한 달간(2007년 7월 13일 마감) 배포 / 공모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자유과제에 20과제, 논문지원과제에 5과제, 학위논문지원과제에 2과제가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주제 영역에 따라 분과를 설립하여 각기 해당 심사위원회에 의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심사를 통해 2007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을 선정하였는 바, 기획/자유과제에 16과제(442,000천원), 논문지원과제에 6과제(24,000천원), 학위논문지원과제에 2과제(12,000천원)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과제명

1. 기획/자유과제

- 미국 국립문서관 소장 '선별 북한 노획문서' 목록 및 '북한 노획문서' DB 작성, 정용욱 외 1명
- 북한의 인구: 1990년대 경제난/기근과 인구변동의 관계(2차), 박경숙 외 1명
- 남북관계분석 및 통일연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 평화, 민족, 인권 개념분석, 하영선 외 2명
- 남북통합지수 모형 개발, 김병연 외 3명
- 북한개발협력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리의 과제, 김재영 외 1명
- 남북한 에너지자원 기술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허은영
- 북한의 농림수산물 대외무역 분석을 통한 남북간 반출입 활성화 방안 연구, 임정빈 외 2명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홍수위험도 평가, 임상준 외 1명
- 남북간 법제통합의 과도기적 과제와 전략, 이철수 외 2명
-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구동독 외교사료의 수집과 해제, 정상환
- 탈북 후 가족 해체 및 재구조화 현상과 심리적 부적응, 이순형 외 2명
- 1980,90년대의 북한 보건의료, 황상익
- 탈북청소년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정효지 외 1명
- 북한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분석과 대응, 김준기
- 남북 재생가능에너지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윤순진
-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의 장기적 변화분석 연구:1990-2007, 은기수

2. 논문지원과제

- 남북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거래행태를 중심으로, 김치욱
- 새터민들의 치료추구행위 경험과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최명애
- 남북 농업협력의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 장경호
- 남-북한 국가 정통성 만들기와 박물관 건립, 조은희
- 선군정치와 경제발전전략, 강호제
- 제 3국에서의 탈북자 실태와 인권현황, 최영진

3. 학위논문지원과제

- 북한의 인구, 생식(모성) 보건현황 및 지원방안, 김수연
- 통일교육의 상호이해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노수미

IUS 신간안내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
비공식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학 신서 1
이승훈, 홍두승 저
2007. 8



북한 산업개발 및 남북협력방안: 지리적 접근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총서 2
박삼옥, 허우궁, 박기호, 박수진 저
2007. 9



2007 통일인식조사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1
김병로, 김병조, 박명규, 서호철, 은기수, 정은미 저
2007. 10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 통일학 연구총서 3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저
2007. 11



남북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통일연구소 통일학연구 2
김병로, 김병연, 박명규, 정은미 저
2007. 12

연구원 동정

8월 김명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 / 대학영어주임
임명
8월 박정란 선임연구원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방
안” 조사 위해 독일 방문
9월 차오위즈(乔禹智, 북경대) / 조은희 (이화여대) / 강호제
(서울대) 객원연구원 임명
9월 연구원 허정범(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 연구조교 정동준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과정) 전입
9월 이승재 교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언어연구 소장 발령
9월 박명규 소장 / 박성조 교수 학술교류 협의위해 독일 방문
10월 이재홍 교수 국제전기전자학회 산하 이동체공학 수석부
회장 / 대한전자공학회 수석부회장 피선
10월 교육행정주사 한경은 전입
10월 황상익 교수 / 장경섭 교수 / 김병로 연구교수 / 정은미
선임연구원 / 조은희 객원연구원 중국 방문, 북중관계 조사
11월 황상익 교수 / 김병로 연구교수 평양 방북, 의료관련 산업
견학
11월·12월 박정란 선임연구원 통일부 정착지원팀(새터민 직업능
력개발), 통일연구원(평화교육 거버넌스) 연구 보고서 출간
12월 정은미 선임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일관계 조사위
해 일본 방문
08년 1월 하용출 교수 the Henry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Korea
Foundation Professor of Korea Social Sciences로 전직.

IUS-eNewsletter 발간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내의 각종 행사 및 일정 등을 많은 분들과 보다 신속하게 공유하고자 2007년 9월 17일 인터넷 뉴스레터를 창간, 발송하고 있습니다. eNewsletter는 격달 간격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고 있으니, 구독을 원하는 분들은 본 연구소(tongil@snu.ac.kr)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음 호부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